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2)

주제: 감사 표현의 역사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2 회 강연에서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전도우(田島優) 교수를 초청하여 「감사 표현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전 교수는 오랫동안 일본어 역사를 연구하였으며, 이번 강연에서 일본어 감사 표현을 고대, 중세후기, 근세후기 세 시기로 나누어 역사적 변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1) 사고의 변화, (2) 감사 표현의 언어 행동 체계에서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중고(中古)에서 중세까지의 감사 표현은 「부끄러운, 수줍어하는」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かたじけなし」이며, 「부끄럽고 황송하다, 미안해하다」의 의미를 가졌다. 중세후기부터는 「ありがたし」를 대표로, 기본 의미는 「미안해하다」이다. 근세후기의 「すみません」는 「고려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들의 공통 기준은 「난처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로,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수년 전에 동일한 결론은 내린 바 있다.

전 교수는 시대별 실제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이 저술한 기독교 문헌 《Nippo Jisho(日葡辞書)》, 《이소호모노가타리(伊曾保物語)》 그리고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다이헤이키(太平記)》, 《낙엽서(落葉書)》, 《일본대문전(日本大文典)》 등을 구체적인 사용 어휘 자료로 삼고, 교겐(狂言)의 《대장호명본(大藏虎明本)》(1642년판)을 참고하여 감사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확인하였다.

감사 표현은 처음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의 단일 방향이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기쁨이나 애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쌍방향의 용법이 되었다. 다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라는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일 방향으로 사용하는 「かたじけなし」는 감사의 용어로, 당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嬉し(즐겁고 기쁘다)」, 「悦喜(매우 기뻐하다)」, 「満足(만족하다)」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쇼쿠니혼기(續日本紀)>에서 「선명(宣命/천황이 발표한 공문, 중국 성지(聖旨)와 비슷한 글)」을 보면 천황(天皇)이 천신(天神)에게 감사를 표하고(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미 왕생(往生)한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 후지와라노(藤原永手) 대신(大臣)에게 감사(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를 표하는 용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かたじけなし」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의 감사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의 새로운 용어 「ありがたし」가 생겼다.

「ありがたし」는 신불(神佛)과 같은 신성(神聖)한 대상이나 승려(僧侶)에 대한 표현으로, 「有難し」와 같이 원래는 매우 진귀한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かたじけなし」가 널리 사용되면서 존경심의 폭이 줄어들었고, 「지나치다」라는 말이나 「勿体なし」, 「冥加なし」 등의 단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すみません」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다」의 의미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즉 「고려하다」의 표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외 다른 감사 표현도 「어쩔 줄 모르다→긍정적 평가→상대방을 배려하다」는 생각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배려의 단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생각의 토대가 아직 존재한다.

근세후기에는 사회의 안정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차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きのどくな」,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すみません」을 사용하였다. 「きのどくな」는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은 윗사람의 말이며, 「すみません」은 말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감사로 바뀌는 용법이다.

근세후기 화가유향(花街柳巷)은 새로운 감사 표현의 발상지가 되었다. 당시 통속소설(通俗小説) 샤레본(洒落本)의 묘사에 의하면, 교토(京都) 일대에서 정도부사 「だんだん」, 「おおきに」를 감사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용법은 당시의 해운(海運)을 통해 서일본(西日本) 전역에 전파되었다. 그 중 「おおきに」 단어는 에도(江戸)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보편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토(京都) 일대에 전래되면서 유행하였다. 에도(江戸)에서는 감사 표현으로 「どうも」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감사라는 용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말로 윗사람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쓰이다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감사 표현에 사용된 용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각 시대의 감사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있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日文撰稿: 齋藤正志 日文系教授 中文翻譯: 鍾季儒 日文系助理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